

회원사 동정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표준형원전에 대한 국제 안전점검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이증재)은 11월 4일(목)부터 11월 18일(목)까지 한국표준형원전인 울진 3·4호기의 운전, 정비 등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 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로부터 종합 안전점검을 받았다.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와 캐나다 등 9개 회원국 전문가 15명(단장 가즈오 사카이, 일본)이 참여하며 원전 운영의 핵심인 발전소 조직운영, 운전능력, 설비정비능력, 방사선관리, 교육훈련 등 7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다.

현재 국내기술로 설계, 건설되어 운영중인 한국표준형원전은 울진 3·4호기를 포함 총 5기가 가동 중인데 이번 안전점검은 한국표준형원전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인 안전점검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점검을 통해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준공된 울진원전 3·4호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재확인함은 물론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원자력의학원

한·일 방사선의학 협정 체결

원자력의학원(원장 이수용)은 11월 16일(화) 일본 지바(千葉)의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NIRS, 소장 야스히토 사사키)와 방사선의학분야 연구 및 기술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 기관은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의료 물리학과 가속기 물리학 부문에서도 전문가 교육 등 연수 프로그램과 기술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수용 원자력의학원장과 야스히토 사사키 일본 방사선종합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공동 연구 수행을 기대했다. 특히 원자력의학원은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과 관련해 기술 이전 및 자문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일본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는 1957년 일본 과학기술청 산하의 방사선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방사선안전 확보, 방사선재해대책 수립, 선진 암 치료법 개발 등을 추진해온 방사선 전문기관이다.

원자력의학원은 2002년 5월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와 방사선비상진료분야에서 부분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원하는 방사선비상진료 국제심포지엄 공동 참가, 전문가 교류 등을 가져왔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용환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최종배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장 등이 참여해 한·일간 방사선의학부문 협력을 축하했다.

-일간보사, 2004.11.17-

방사성동위원소 대량 생산

원자력의학원(원장 이수용) RI 및 방사성의약품개발실 전권수 박사팀은 11월 8일(월) 대전류 사이클로트론

(30 MeV)을 지난 6개월간 정상 가동시킨 결과, 암 진단용 동위원소 생산량이 기존에 비해 최고 10배까지 증가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의학원은 지난 2002년 대전류 사이클로트론(350 μ A)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GMP 등 생산시설을 구축해 지난 4월부터 정상 가동해왔다. 이 시설로 인해 갑상선 암 진단용 동위원소인 고순도 I-123은 생산량이 10배 가량 증가했으며, 약성종양 진단용 동위원소 Ga-67과 심장 질환 진단용 Tl-201은 생산량이 각각 5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Tl-201의 경우 일본으로 수출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는 매년 10% 이상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중 80% 가량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자력의학원의 안정적 대량 생산 및 보급체제 구축으로 국내 소비

량의 약 35%(15억원 상당)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의학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의료용 동위원소를 20년 가까이 생산해온 의학원의 노하우와 빔 전류세기를 6배 가량 높은 대전류 사이클로트론의 우수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권수 박사팀은 다양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술의 자립화 및 방사성의약품의 국산화로 동위원소 이용 진단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일간보사, 2004.11.8-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방사선 측정 워크숍 개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Robert B. Laughlin)은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공동으로 11월 17일(수) 대전 KAIST 기계공학동에서 방사선 측정 및 응용기술에 관

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방사선기술(RT) 및 산업과 관련된 논문 10여 편이 소개되었다.

국내 동정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방사선방호 및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추계 심포지엄 개최

대한방사선방어학회(회장 권석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는 11월 10일(수) ~ 12일(금)까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회장 이근재, KAIST), 제주대 방사선응용과학연구소(소장 박재우, 기계에너지생산공학부)와 공동으로 ‘방사선방호 및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추계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는 28년의 역사를 가진 방사선방호분야의 전문학술단체로 매년 2회 국내외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방사선방호, 방사선측정,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 등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의 발

표 및 관련정보를 교환하는 학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법제와 윤리” 등 4건의 특별강연에 이어 방사성폐기물 정책 및 체폐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처분, 사용후핵연료 및 핵연료 주기, 의료 및 생물, 측정 및 분석, 한·우크라이나 방사선 측정 공동세션, 방사선 방호 및 환경 등 7개분과에서 약 6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80여 편의 최신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참석자들간의 활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